

조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본 외에 주요 선진국으로 수입선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도 높아졌다. 최근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주요 핵심부품의 경우 일본이 아닌 타 국가 업체들로부터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 3달가량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서울경제, 2011.4.18]

◆ “올해 디스플레이 업계 분수령 될 것”

일본 대재앙에 따른 현지 부품소재 및 장비업계의 피해 확산 여부가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대형(9.1인치 이상) LCD보다는 중소형 LCD 및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월 22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지진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윤성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이사는 “이번 일본 대지진은 현지 디스플레이 소재 및 부품, 장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LCD 패널 가격 상승 및 시장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널과 세트업체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2분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패널업체의 경우 현지 공급망의 붕괴로 가격 인상을 주장하겠지만, 세트 업체들은 소비심리 위축과 일본 세트업체의 가동 중단에 따른 시장 활력 저하로 가격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와 파장이 다 드러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전자신문, 2011.3.23]

LED

◆ LED조명, 한반도는 좋다

최근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며 친환경·고효율 조명인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의 경우 2012년부터 민수 시장이 본격 열릴 조짐을 보이며 국내 LED조명 업계는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해외 시장은 내수 부진인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초체력인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다.

해외에서 먼저 품질 수준을 인정받은 뒤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이른바 ‘왕의 귀환’을 노리는 업체가 적지 않다.

관련 업계의 한 임원은 “2012년은 LED 조명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는 당장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전면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2012년부터 100와트(W) 이상의 백열등 사용을 금지한다. EU 소속국가들도 2012년부터 백열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에 전면 합의했다. 일본은 내년 3월부터 탄소세를 톤당 1만5000엔씩 부과해 LED 조명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지는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효율 조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계 LED조명 시장규모는 3조7000억원에 달하며 오는 2015년에는 7조4000억원으로 매년 50% 이상 급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전자신문, 2011.3.3]

◆ 한국판 캘리포 인증, 국내 LED조명 시장을 흔든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LED조명 성능을 시험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국판 ‘캘리포